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정체성 연구*

— 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김재원^{*}

I. 머리말

II. 이론 및 연구 참여자 분석

III.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정체성 형성 요인

IV.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문화정체성의 특징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유리되어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¹⁾ 그 속에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가 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 정권과 조총련, 일본 정부에 의해 북송되었다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1959년 12월 첫 북송이 시작된 이래 1984년까지 9만 3,342명이 북송되었다. 이 가운데 500여 명의 북송 1.5세대²⁾ 재일동포들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돌아왔

* 본 연구는 김재원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복합 정체성 연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 북한학 전공, entire525@hanmail.net

1) 김재원,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복합 정체성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08. p.1.

2)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1.5세대는 북송 당시 0세~19세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 북송된, 북송 당시의 재일동포 자녀 세대를 뜻한다.

다. 북송 1.5세대 재일동포는 유소년기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북송되었던 사람들이다. 2.0자녀 세대와 3.0세대를 더하면 현재 1,000여명 이상의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정체성을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 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는 일본에서 태어나 유소년기를 보내고, 북송되어 청소년기와 중장년기를 보내고, 탈북하여 한국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다. 연구 대상인 북송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인 부모를 두고 있는 자이니치(Zainichi)이다. 또한 탈북자(North Korean refugees)이기도 하다. 이들은 일본과 북한의 문화를 모두 경험 하였고, 지금은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연구는 디아스포라(diaspora) 정체성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5명³⁾을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구술 텍스트를 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주원(2019)은 문화를 억압과 불행을 참고 견뎌내기 위해 만들어진 ‘승화(sublimation)’라고 표현했다.⁴⁾ 피니(Phinney)는 문화정체성을 “집단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자기 동일시, 소속감, 집단구성원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했다.⁵⁾ 또한 이현주 외(2011)는 문화정체성을 그 사회에 관한 관찰 가능한 문화적 특징에 대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주관적 감정, 그리고 집단 유대감과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자기 동일시, 소속감 등의 개념과 연결된 인식을 문화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⁶⁾ 따라서 문화정

3) 연구 참여자들은 2018년 12월 14일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모임”에서 주최한 ‘북한의 강제 북송 60년 준비 행사’에서 만나 지금까지 꾸준히 만나고 있다.

4) 박주원, 「자아와 문화의 정체성, 불안과 불만의 문화정치학 - 프로이트(S. Freud) 정신분석학의 정치사상적 접근」, 『21세기정치학회보』 제29집, 1호, 2019, p.9.

5) Phinney, J. S.(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6) 이현주·강현아, 「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32집 4호, 2011, pp.147-166.; 정정현·김선

체성의 분석 준거는 고향에 대한 기억과 의식, 언어적 특이성, 생활 습관과 풍습, 문화적 유대감과 친밀감, 상호작용 및 자기 동일시 등이다.

북송된 재일동포들에게 일본에 있는 고향은 누구에게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고, 애착이나 고향 방문 의사조차 말하기 어려웠다. 이들에게 고향은 꿈에라도 가고 싶은, 그러나 갈 수 없는 토포필리아(topophilia)적 장소인 동시에 치유 받아야 하는 노스탤지어(nostalgia)이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유창하게 일본말을 했고, 일본의 노래와 책을 즐겨 읽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기억과 의식에서는 디스토피아(dystopia)로 남아 있었다.⁷⁾ 북송 재일동포들이 북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는 재일동포들 밖에 없었다. 본 연구자가 그동안 만나 본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60여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같은 출신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⁸⁾

지금까지의 논지를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다. 첫째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문화정체성 형성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이산 집단의 하나로서 평생을 온전하게 정주하지 못하고 재류하면서 살아왔다. 둘째로, 동화의 관점에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문화정체성을 분석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이다. 셋째로, 시공간적 차원에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경험한 문화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이다.

미,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학생의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정체성과 자아정체성 비교 분석」, 『사회과학교육연구』 제20집 4호, 2013, pp.99.; 김재원, 앞의 논문. p.53, 재인용.

7) 존 스튜어트 밀이 1968년 영국 의회에서 아일랜드에 대한 정부의 억압 정책을 비판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디스토피아(dystopia)는 유토피아(utopia)와 상반되는 안티유토피아(anti-utopia)의 개념으로 억압, 강제, 독재 등의 공동체 또는 사회(communitiy or society)를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8) 그 1명은 북한(여성) 분과 결혼해서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한다. 이혼한 이유에 대해 “맞지 않지”라는 짧은 대답이 전부였다.

II. 이론 및 연구 참여자 분석

1. 이론적 함의

일반적으로 정체성(identity)은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특정 사회, 조직, 인종, 민족, 국가와 같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체성의 존재와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의 형성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든스(Giddens, 1991)는 정체성을 “어떤 대상에 대한 성찰적 인식(reflexive awareness ‘of’ or consciousness ‘of’)”이라고 했다.⁹⁾ 브루베이커(Brubaker, 1992)는 여기서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 인식”을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고 정의했다.¹⁰⁾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사회로써 본질을 탐구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역으로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프랑수아 줄리앙(Francois Jullien)은 실제로 이와 같은 개념들의 구분, 간극과 차이의 구분으로부터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¹¹⁾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종족, 민족, 국가, 사회, 문화가 밀접하게 교집합하고 있기에 정체성의 이론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문화정체성이란 정체성의 한 갈래로 특정 민족·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일체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삶의 가치와 규범이며 역사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민족적 집단으로부터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

9)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52.

10) Rogers.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11) 프랑수아 줄리앙 저, 이근세 역,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교유당, 2020. pp.44-51.

는 것이다.¹²⁾ 뱅크스(Banks, 2006)는 문화적 정체성을 자신이 속한 문화적 집단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아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¹³⁾ 넓은 의미에서 집단 정체성의 한 유형으로 인종과 같은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의 자기 개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적 정체성이다.¹⁴⁾

역사적으로 특정 사회 내에서 이주자 그룹으로 분류되는 외집단은 원주민 그룹인 내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타즈펠(Tajfel, 1981)은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 나타나는 ‘편가르기 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사회정체성이란 개인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소속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되는 지위와 가치, 정서적 의미에서 발생하는 자기 개념을 사회정체성이라고 규정하였다.¹⁵⁾ 즉, 사회정체성 이론은 사회집단의 분석단위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¹⁶⁾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준거 집단으로 범주화되어 이해된다. 이로 인해 개인은 국가·민족·학교·종교집단 등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동기 또한 여기에 있다.¹⁷⁾ 카스텔과 밀러(Castel and Miller,

12) 박윤신, 「다문화시대의 문화정체성 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7; 김재원, 위의 책(논문). p.53.(재인용).

13) J. A. Banks,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2006); 서성민·강희양·김태호,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정체감 태도 발달과 정서적 안정감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집 1호, 2013, p.71.

14) J. S. Phinney, & V. Chavira,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n Exploratory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Vol. 15, 1992, pp.271-281.

14) H. Tajfel.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15) 김재원, 위의 책(논문). p.54.

17) H. Tajfel, and J. C.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J. T. Jost & J. Sidanius (eds.). *Key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Political psychology: Key readings. New York, NY. US: Psychology Press, 2004, pp.276-293.; 김희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유라시아연구』 제15집 3호, 2018,

2003)는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으로 인해 ‘유대’와 ‘연대’ 의식을 가진다고 했다. 여기서 개인은 타 집단을 외집단화하여 배제하고 차별하며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¹⁸⁾

보가르두스(Bogardus, 1925)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성을 ‘멀다’ 혹은 ‘가깝다’라는 표현처럼 사회적 거리감 또한 ‘측정’¹⁹⁾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²⁰⁾ 카두신(Kadushin, 1962)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 간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정체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²¹⁾ 파릴로와 도노휴(Parrillo and Donoghue, 2005)는 인종과 문화 등의 상이성이 두드러지는 외집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이기적인 편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內집단(ingroup)²²⁾을 더 ‘친근·우호’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심리 사회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²³⁾

이명진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의 경우 남한 주민과의 사회적 거리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탈북민을 한민족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척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⁴⁾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²⁵⁾, 종교의 경우 종교

pp.21-27.

18) S. M. J. Miller, Castles, and G. Ammendola.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3, pp.537-542.

19)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개인 간의 심리적 거리 또한 물리적인 공간이나 거리를 자로 재듯이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 E. S. Bogardus. Measuring social distance,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Vol. 9, No. 2 1925, pp.299-308.

21) “즉, 개인 간의 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거리와 지위(물리적 상하 관계)에 따른 사회적 거리는 엄연히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 Kadushin. Alfred. A Study of Adoptive Parents of Hard-to-Place Children, *School of Work*, University of Wisconsin, 1962.

22) 외집단 내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집단

23) V. N. Parrillo. and C. Donoghue. Updating the Bogardus social distance studies: a new nation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42, 2005, pp.257-271.

24) 이명진·최유정·최선희,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집 1호, 2010, pp.63-85.

25)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집 1

인이 비종교인에 비해 他집단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²⁶⁾ 이러한 현상은 민족·국가 정체성의 배경이 되는 민족주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최영호(2008)는 민족주의를 “역사적 운명에 의해 맺어진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족(people)이, 자치하는 국민(nation)을 향해, ‘국가체(nationality)’나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마당(나라) 안에서, 다른 커뮤니티와 구별하여 자기동일화(identify)해 가기 위해, 정당화·체계화된 신념의 집합체(Ideology)”라고 했다.²⁷⁾

헤겔(Hegel)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정신적인 인정함 자체”²⁸⁾이다. 여기서 “정신적인 인정함”이 의미하는 것은 “의식” 그 자체이다. 남기호(2009)는 인간을 “정신적으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활동성 자체”로 규정하고, “의식적인 개체는 이것을 인식하거나 저것을 의지할 수도 또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²⁹⁾ 이희영(2010)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인 인정투쟁을 전개한다고 규정했다.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 대한 생애사적 경험, 정치적 소속과 사회·문화적 체험 사이의 간극을 가진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로써,³⁰⁾ 호네스(Honneth)의 암묵적인 “인정투쟁”과 괴를 같이하고 있다.³¹⁾ 물론 근대적 국민국가 내에서 설명 가능한 호네스의 “인

호, 2013, pp.395-421;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6) H. C. Triandis, and L. M. Triandis. Race, social class, religion, and nationality as determinants of social distanc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1 1960, p.110.; 강가영·장유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를여는청소년학』 제10집 1호, 2013, pp.97-123.; 조학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복음과 실천』 제53집 1호, 2014, pp.389-418.

27) 최영호,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 변화의 역사」, 『한국사연구』 제140집, 2008, pp.69-70.

28) Hegel, G. W. Friedrich., *Jenaer Systementwürfe III*, p.213.

29) 남기호,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 『사회와 철학』 제18집, 2009, pp.222-223.

30)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제1호, 2010, p.207.

31) Honneth, Axel.,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악셀 호네트 저,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경기: 사월의책), 2011.

정투쟁” 이론을 북한과 같이 비합리적 국가 내에서의 경험을 포괄하고 있는 탈북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경우 북한에서의 삶은 생애적 차원에서 “재류(在留)”라는 점에서 재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은 기든스(Giddens, 1991)의 정의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성찰적 인식(reflexive awareness ‘of’ 또는 consciousness ‘of’)”이다.³²⁾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 규정하는 자기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³⁾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역으로 문화정체성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프랑수아 줄리앙(Francois Jullien)은 실제로 이와 같은 개념들의 구분, 간극과 차이의 구분으로부터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³⁴⁾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종족, 민족, 국가, 사회, 문화가 밀접하게 교집합하고 있기에 정체성의 이론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시선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참여자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개인적인 연결이 있어 만남을 지속해 왔고, 2021년 석사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로 만났

32)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52.; 홍서연·손병덕·손주희,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거주 국민을 중심으로」, 『다문화연구』 제12집 3호, 2018, pp.300-324.;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23집 1호, 2011, pp.143-192.

33) R.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s: Harvard University Pres. 1992.

34) 프랑수아 줄리앙 저, 이근세 역,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교유당, 2020. pp.44-51.

던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가족으로 선정하였다.³⁵⁾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해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활용했다.³⁶⁾ 연구 참여자의 표집 방법은 “의도적인 표본추출 전략”으로 ‘편의 표본추출’ 및 ‘눈덩이 굴리기(snow-ball sampling)’³⁷⁾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구술자) 인적 현황

구분	성함	나이	성별	생년 월일	북송 시기	탈북 시기	지역
1	A	79	여	1945년	1960년 8월	2001년	서울
2	B	73	여	1951년	1961년 6월	2009년	수원
3	C	74	여	1950년	1960년 7월	2011년	수원
4	D	74	남	1950년	1960년 5월	2011년	수원
5	E	71	여	1953년	1960년 7월	2007년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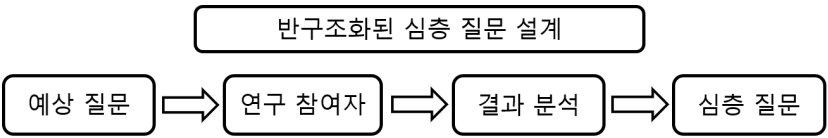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A(여, 1945)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960년 15살의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북송되어 40년 만에 북한을 탈출, B(여, 1951)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961년 10살의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북송되어 48년 만에 북한을 탈출, C(여, 1950)는 경기 수원에 거

35) 본 연구는 2021년 석사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로 면담했던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뷰를 했던 회원들 중에서 건강상 양호한 분 중에서 5분을 선정하여, 자택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탈북자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진행하였다.

36) 비확률 표집방법은 세부적으로 판단 표집(judgement sampling)과 편의적 표집(opportunistic sampling) 그리고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37) ‘눈덩이 굴리기(snow-ball sampling) 또는 연쇄(chain)’ 추출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사례(cases on interest)를 확인하는 전략이다.;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8.

주하고 있으며, 1960년 10살의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북송되어 51년 만에 북한을 탈출, D(남, 1950)는 경기 수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1960년 10살의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북송되어 51년 만에 북한을 탈출, E(여, 1953)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960년 13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북송되어 47년 만에 북한을 탈출 하였다.



[그림 1] 반구조화된 심층 질문 설계도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예상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기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했다.³⁸⁾

<표 1-3> 인터뷰를 위한 주요 항목 관계도

주요 항목	주요 항목 간 상호 관계	
	간단한 소개 설명	느슨한 형태의 면접 카드(이들 각각의 주제와 화제마다 해당되는 질문들로 카드를 작성)
	사회적·개인적 특성 요약	
	가정환경 및 사회적 시선	
	사회적 압박 수위 극복 과정	이산의 역사, 개인과 가족 구성원 간 관계, 사회적 시선과 편견
	삶을 되돌아보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 (대화의 대도 살펴보기)	공식적 및 외적 요소(법, 제도 포함), 삶의 과정
	연좌제에 관한 질문 점검	가족 내의 책임 관계
	개인적 특성 점검	현재 및 과거 사회적/개인적 특성

38) 김재원, 위의 책(논문), p.31.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건강상의 문제, 질문의 요점 파악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이명현상이나 발음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성격의 심층 면접을 위한 질문 설계가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반구조화 된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의 세부적인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취합된 심층 면접 인터뷰 내용은 Strauss & Corbin의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으로 이어지는 분석 절차 및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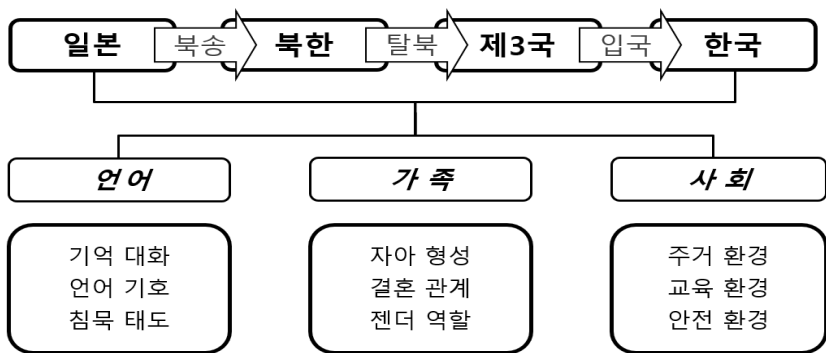
연구를 위한 인터뷰 질문의 주요 항목은 <표 1-3>과 같이 설계하였다. 먼저 간단한 연구에 대한 소개와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회적 및 개인적 특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가정환경이나 주변 및 사회적 시선들을 느낀한 형태의 면접 카드로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압박 수위와 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극복 과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야기와 함께 삶의 회한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윤리의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윤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⁴⁰⁾

39) 김재원, 위의 책(논문), p.31.

40) 본 연구를 위해 자료의 수집 이전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또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취지, 연구로 인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경우 가족 전원 혹은 대부분이 함께 탈북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최대한 가족 전원이 탈북한 사례로 한정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압력이나 회유, 중용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연세가 많은 관계로 인터뷰 내내 예의 있는 태도로 임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발음이 어눌하여 정확히 듣지 못했을 때는 시간을 두고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택했다.

3. 연구 분석 모형

본 연구 수행을 위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정체성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 구술로 구성된 내러티브(narrative) 분석을 위한 ‘분석 모형’이 필요하다. 여기서 연구 ‘분석 모형’은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 기준을 말한다. 즉, 절차나 순서도 없이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러티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속 사건이나 현상, 사물 등을 각각의 개별 요소와 분석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의 기준은 [그림 2]와 같이 구체적으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이동하면서 경유하게 되는 ‘장소(국가)’와 ‘정체성’이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경험한 정체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 문화정체성 분석 모형

본 연구에 참여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1.5세대는 일본에서 태어난 이들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기인 10대에 부모에 의해 북송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10대 청소년 시기 일본에서의 경험은 언어, 가족 정체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보낸 십수년의

시간은 북송 재일동포 1.5세대의 전반적인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단, 중국을 비롯한 제3국적의 경우 재류 시간이 짧고, 신분을 속이고 숨어 지냈어야 했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의 경험은 인생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에 대한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정체성의 기본 요소와 현상 분석을 위한 분석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체성의 기본 요소는 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문화정체성은 언어, 가족, 사회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문화’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문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문화 인류학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언어이다. 인간은 다양한 언어 사용 과정에서 소통(communication)을 하며, 소통은 가족으로부터 사회의 중요 연결 고리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의 세부 영역으로 언어는 기억 대화, 언어 기호, 침묵 태도 등으로, 가족은 자아 형성, 결혼 관계, 젠더 역할로, 사회는 주거, 교육, 안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II.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정체성 형성 요인

1. 언어 정체성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정체성 형성의 근원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상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다. 정체성 이론의 특성상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한 개인이 지닌 다양한 정체성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북송 재일동

포 탈북자들의 기억과 대화를 통한 경험의 도출이 중요하다. 시·공간적 차원에서 본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곳은 “고향”이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에게 고향인 일본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토포필리아’였다.⁴¹⁾ 토포필리아는 태생적 환경과 장소에 대한 인지·감정적 ‘연계의식’을 의미한다.⁴²⁾ 따라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에게 고향은 “평생을 가고 싶어 했던”, 하지만 “갈 수 없었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기억 속에 고향은 늘 항상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70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상세하게 구술하였다. 구술자 A는 “내 고향은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야쓰그리쵸’예요”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지진 9.0”이라는 날짜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피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고 구술하였다. 고향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구술자 B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B는 지진으로 없어진 고향집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고배 지진으로 고향집이 없어진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라고 표현했다. B는 고향에서 유명한 특산물인 ‘정종과 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정도로 생동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 고향은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야쓰그리쵸’예요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야쓰그리쵸, 후쿠시현이라고 있어요. 그 지진나고 원전사고 나서 심각하게 떠들던데, 거기에 후쿠시마시인데, 거기에 야쓰그리쵸라는 마을이 있어요.. 나는 거기가 고향이에요. 예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2013년 3월11일, 지진 9.0, 그때 걱정을 엄청 했어요. 그래도 내 고향인데, 거기에서 지진나고 또 핵발전소가 물에 잠겨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걱정이

41) 김재원, 위의 책(논문), p.60.

42) 오인혜, 「탈북자의 토포필리아와 고향의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p.131.

많이 되죠. 그때는 뉴스만 틀면 그 이야기 밖에 안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후쿠시마 이야기 하자나요. 그런데 거기가 고향인 제게는 좀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닌가하는... 지진이 9.0이라고 하자나요. 그러면 그거는 엄청 큰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지진을 자주 경험했으니까 알죠...(A)

제 고향은 고베시예요. 탈북한 후에 일본가서 고향을 찾아 갔어요. 근데 고베 지진으로 고향집이 없어진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다닌 학교랑 길이란 그대로 있는데 집은 없어진거예요. 물론 학교는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딸이랑 다시 갈거예요. 제 고향 고베는 쌀이 유명해요. 그래서 술이 참 잘되요. 거기서는 정종이라고 하자나요. 고베에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술 공장이 있어요. 정종 만드는 공장이지요. 참, 거기 소고기도 유명해요. 나중에 오사카에서 살 때 우리 집은 고베에서 고기 가져다가 먹었어요. 고베는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나는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기억에 생생하죠...(B)

하지만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고향에 대한 인식이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는 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과거 시점 즉, 북한 거주 시점에서의 기억에는 ‘되돌아 갈 수 없는 고향’, ‘잃어 버린 고향’이었다. A는 평생을 잊고 지냈던, 잊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북한에서의 상황에 대해 “가고 싶는데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일본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름과 함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A는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내 고향도 기억에서 다 없애버려야하고... 그거야 고향”이었다고 구술했다. E는 고향을 방문 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북한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격앙된 어조로 “고향길을 걸으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이제야 왔을까 하는. 북한에서는 고향 생각나도 말 못하자나요. 말하면 언제 없어지니까...”라고 진술했다. B는 청진 앞바다에 나가서 고향에 “이키타이(行きたい)”라고, “가고싶다”고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북송된 이후

늘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츠미, 너 고향을 꼭 기억해라. “나는 너가 살아서는 꼭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많이 미안해” 그러시더라구요. 아, 그때 많이 울었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곳, 그거이 고향이지요. 그거이 아마 고향 아니겠나. 그런데 나는 고향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자나요.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내 고향도 기억에서 다 없애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지요. 내가 결혼할 때, 시집간다고 하자나요. 어머니가 “하츠미, 잘 살아야 한다”하시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지요...(A)

고향에 갔는데 그대로이데. 차를 타고 가면 옛날 기억이 그렇잖소. 그래서 걸어서 가봤지. 원래는 버스로 두세 정거장인데 걸어서 갔소. 옛날에는 지금처럼 포장도로 아니자나. 근데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 게다썩 신고 다녔소. 그래서 비가 오면 길이 질퍽질퍽하자나. 그래서 길에 돌을 쭈욱 깔았었어요. 아이들이 길가에서 뛰어 놀다가 자빠지면 무릎 다 까이고 옷에 구멍 나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나는거예요. 옛날에는 조선 사람들이 사는 판자집이랑 오랭국집이랑 가득했는데, 지금 가니까 다 도시풍이죠...고향길을 걸으면서 화가 막 나는거예요. 왜 이제야 왔을까 하는. 북한에서 사는 고향 생각나도 말 못하잖소. 말하면 언제 없어지니까...(E)

청진에... 바다가에... 광장이 있어요. 밤이면 거기에 나가서 소리 마니켰어요... (고향에) 이키타이(行きたい)! 이키타이(行きたい)! 가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목이 꼭 부어서.... 마리 안나오도록...(B).

연구에 참여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1.5세대로 일본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사용한 세대로 여전히 일본어의 특성이 나타났다. 일본에서 지냈던 시간보다 북한에서 살았던 기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사용에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 대화의 맥락에 있어서도 일본식 억양이 섞여 있는 어투로 대화했다. C의 경우 한국어 발

음에 있어서 어려운 “ㄹ” 발음을 일본식으로 발음하였다. 반면에 D는 북한식 어투로 대화를 했다. 말 끝마디에 “소”를 붙여 북한의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했다.

일본마를 하지마라 하시는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드려와서 하시는 마르
슴이 일본마를 하지마라, 조선마를 배워라 해서 조선마를 배웠어요. 조선마
를 배워야 한다. 히므드더라도 조선마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집에서도 일
본마를 조심하게 사용했어요. 아버지 누이치 보면서요...(C)

북한에서 보낸 세월을 어떻게 말로 하겠소. 그래도 한마디로 말하면 북
한은 기만의 나라이다. 그렇지, 기만과 사기지. 근데 속은 우리도 잘못이지.
그러게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했소. 그래도 간거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소. 우리가 딱 그 격이야. 북한에서는 모두 연기를 해야 살지엔
소...(D)

2. 가족 정체성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경우 대체로 가족 단위로 탈북한 경우가 많
았다. 2.0세대의 아들이 1.5세대 부모와 3.0세대의 자녀를 데리고 함께 탈
북한 경우가 많았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북에 남겨진 형제(가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에게 북
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과 아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
그 자체로 표현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A, B, C, D 구술자 모두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질문에 “긴 한숨”으로 대답하거나, “멀리 창밖을 응시”하는 태
도로 답을 대체하였다. C는 “우리가 온 다음에 잡혀갔다고 해요.”라는 짧은
답이 전부였다.

형님 가족이 있었는데, 우리가 온 다음에 잡혀갔다고 해요.... (길게 한숨만 쉼...)(C)

...휴 (긴 한숨만 쉼) (A)

여동생 가족이 있는데... 휴 ... (멀리 창밖을 응시함)(B)

북송 재일동포들이 북한에서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인 특이한 현상은 바로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 간의 “결혼” 이었다. 본 연구 외에도 연구자가 만나 본 60여 명의 1.5세대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신분인 재일동포(자녀)와 결혼을 하였다.⁴³⁾ 특이한 점은 결혼 당사자들 또한 자신의 결혼 상대로 북송 재일동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혼 상대로 재일동포를 생각한 이유에 대해 E는 “북한 남자 하나도 모르겠소. 큰 소리만 치고, 문화도 안 맞고 우리를 이해도 못하죠”라고 진술하였다. A 또한 “까치는 까치끼리 살아야한다”고 말했다.

양복부에 있으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학교 때도 남자 여자 다 갈라져 있지.... 북한 남자 하나도 모르겠소. 큰 소리만 치고, 문화도 안 맞고 우리를 이해도 못하죠.... 북한 남자들하고 아무말도 못해요...(E)

애초에 북한 여성 만나서 결혼한다는게 내키지 않지. 어떻게 믿소. 못 믿소. 처음에 북한에서 귀국자 남자들이 북한 여성 만나서 당한게 많소. 그래서 우리는 알지. 거이 우리 아버지 세대 귀국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 믿지. 그냥 까치는 까치끼리 살아야한다 뭐 그거이 아니겠소.(A)

현재 탈북하여 국내 거주 중인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경우

43) 본 연구자가 2018년 10월,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모임”에서 처음으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을 만나게 된 이후 지금까지 연구의 목적 외 여러 가지 사연으로 수십 명의 북송 탈북자들을 만나 오면서 북한 출신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경우는 단 한 명뿐이었다.

대부분이 가족 전체가 함께 온 경우가 많았다. 이는 즉,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경우 가족에 대한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일동포”의 신분으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 결속 집단이 가족이었다. 북송 재일동포들에게 가장 믿을 수 있고, 자신의 속내를 전부 터놓을 수 있는 최소한 안전 지역이 바로 가족이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경우 북한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높았다. 남성들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당, 국가, 수령)⁴⁴⁾로부터의 인정이었다. D의 경우는 북한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자원하여 군대도 가게 되었고, 대학도 갈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에는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그리는 1호 창작가가 되어 “사회적인 명예”를 지니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D는 자신이 얻은 사회적 명예에 대해 재일동포로서 “살아 남아야 하고”, 내가 “가장의 책임”이 있다는 “일념”으로 받은 “상”이라고 말했다. D의 가족관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귀국자는 군대에 안 뽑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거지. 일본에서 살다가 온애들은 못 믿는다 이거겠지. 그래서 군사동원부에 이야기했어. 나는 공부도 잘했고, 한테 군대는 갈 수 있잖은가. 그래서 멀리 전연 쪽에는 안보내고 량강도에 있는 6군단 43보병 여단에 갔어. 2년 복무했을 때 동생이 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왔어... 나는 군 제대하고 대학에 갔지...그거이 시작이 돼서 이후 귀국자들이 군대에 가게 된거야....⁴⁵⁾

우리 집은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귀국한거자나. 그러니까 내가 맏이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별수 있나, 악착같이 살아서 남아야했지...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된거야... 대학은 안보내주니까 못하고... 그렇다고

44) 북한 사회에서 인정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으로부터의 인정을 의미한다. 북한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가장 대표적인 구호이다.

45) 김재원, 위의 책(논문), p.87.

공장에서 일할 수는 없고 해서 온갖 충성을 다 해야 했지. 나처럼 일본에서 보내주는 돈도 없고 가난한 재일동포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 남아지 별 수가 없지. 우리는 오직 그 일념이라고 하지. 내가 가장이니까 책임감도 있고, 가족이 살아 남아야 한다는 일념... 1호 작가가 되니까 그래도 배급은 조금씩 받자나. 그리고 사는게 좀 유도리도 있고.... 그게 내가 받은 상이지...(D)

본 연구에 참여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사회와 언어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단순히 노동력을 치부하는 북한 사회에서 북송 재일동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지는 없었다. 대부분의 북송 재일동포 여성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5년을 전후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언어, 열악한 사회적 지위가 원인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 대부분인 E, A, C의 경우 부모의 보수적인 태도와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점이 특이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북한 여자들은 다 일을 하자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 마리 서툰고 못하니까 일을 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여자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돼. 그러셨지.(E)

사회에서 재일동포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해서 일찍 결혼했지... 21살에 결혼한거야...(A)

여자가 뭐 있어요.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 살림 잘 하면 되는거지...(C)

연구자가 그동안 만나본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탈북하였다는 점이 특이했다. 물론 그 중에는 북송 재일동포 2.0세

대인 자녀들이 먼저 탈북하고, 이후에 1.5세대 부모들이 탈북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E는 아버지로부터 가족의 소중함을 유언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북송 재일동포들에게 가족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고, 북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소통이 가능한 최소한의 (가족)사회였다. B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을 따라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B는 탈북 당시를 회상하며 “내 생애에서는 두 번 다시 이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에게 가족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운명공동체였다.

우리는 가족 모두가 같이 왔죠. 아버지가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수 없이 마르했어요. 가족이 아버지 유언이지요.... 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이틀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죠..근데 우리에게 가족이 밖에 없자나요. 왜냐하면은 가족은 우리가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 안하고 할 수 있으니까... 가족의 소중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이에요...(E)

아버지가 가시고 어머니가 곡기를 끊었어요.... 와~, 안드시데요. 그렇게 사흘 지나서 가셨어. 그런데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고향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 유언이 고향으로 가라는 거였어요....그래서 왔죠. 가다가 죽어도 우리 가족 모두 간다 하고 왔어요... 내 생애에서는 두 번다시 이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난 봤자나요...(B)

3. 사회 정체성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경험한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은 고향집이 있는 일본에서의 추억을 강조했다. 비록 현재에 비하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에서 살았던 수십 년에 비하면 아늑한 곳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곳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과 ‘장소’

를 넘어 ‘친구들과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다. 즉, 공간성과 장소성, 시간성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에게 일본에 있는 고향은 추억이 있는 희망의 공간이자 아쉬움과 애달픔이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그 속에는 항상 가족들이 있었고,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었다.

E에게 일본에 있는 고향집은 “외할머니와 가족들”이라고 했다. E에게 행복은 다 같이 모여 사는 것, 가족의 사랑이 행복이었다. 반면에 북한에서 삶의 환경을 한마디로 “고생”이라고 정의했다. 14살부터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 먹었다고 진술한 E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구술자 대부분이 E와 같이 북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도 자주 일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기억이 남는다는 거, 글썽 고향이지. 고향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은 외할머니와 가족들이고, 가족의 사랑이지...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외가가 다 일본사람들인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사니까 그게 행복 한거지. 이모가 있었는데 우리를 끄찍이도 아껴주셨소. 이모가 저녁이면 길 거리에 나가서 오텐도 사주고, 일본 오텐은 우리 지금 오텐이랑 많이 달라요...

북한에서 삶이 무엇인가 하면 “고생”이지. 처음에 북한에서 주는 집에 가니까, 나무를 때는 아궁이 있는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석유콘노를 때고 살았는데... 나무가 어디 있어서 가져다가 불을 때냐고,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소. 어머니가 북한마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다하고 그랬지요. 그때 나는 14살인데 3년 넘게 물을 길어 먹었소. 옆에 집에 내 또래 애들이 있어서 다행이도 글을 배우고 했지요.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다 물을 길으러 가자나요. 그때는 그거야 어찌나 무겁던지. 옆집 애한테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것을 배웠소.. 고생 말도 못하오...(E)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삶 속에서 다음으로 주목해 볼 점은 “차별”이었다. 먼저는 일본에서 거주할 당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차별과 북한에서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차별의 유사점과 공통

점이다. C는 “조센징”이라고 놀리는 일본 아이들에 대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C의 아버지 경우 조총련에서 당에 가입을 했었지만, 북한 정부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에서 다시 “로동당”에 가입해야 했다.⁴⁶⁾ A의 경우도 놀려주는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대응을 하거나 형제들이 함께 나서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찌포”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 말이 서툰고, 문화 또한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일본에서 차별은 있지요. 그때는 아주 어릴 때니까요. 인민학교지, 북한으로 치면은 그때 3학년 때인가 일본 아들이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놀리고, 돌을 던지고 그러는 거야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 했더니 아버지가 바로 그 집에 갔어요. 집주인 나오라고 해요. 하고 아들도 나오라고 해. 그리고 세워 놓고, 다시 한번 이 집 아들이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그때는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바깥에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조폭들도 하고... 그리고는 일본 아들에게 “조센징”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일본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은 또 안그래...

조선에서야 늘 우리는 “찌포”죠... 말도 안되고 문화도 모르고, 아는거이 없자나요... 그러니까 그거이 차별이죠. 모르면 배워야 하는데 배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서 가지고 온 옷이 있자나요. 옷만 봐도 조선 사람들은 알아요. 재는 찌포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놀리죠... “쪽바리”라고... 나는 참 그말이 어리나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모욕적이에요... 내가 왜 쪽바리인가... 우리가 귀국할 때, 아버지가 당원이라고, 당에 가입을 했는데, 북한에서 당에 가입을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리문 뭘가고 했는데 “그거이 믿을 수 없고, 일본에 당

46) 북한에서 일반인이 “로동당”에 가입하는 것은 최고의 영예로 인식된다. C의 아버지 경우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 당시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을 했음에도 북한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다시 당에 가입하게 한 사례는 북한 “로동당”이 재일동포를 대했던 대표적인 차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에 들은 것은 공화국에서 당에 든거하고는 다르오. 다시 충성심을 보이도록 하시오” 해서 다시 당에 들었이요. 이게 뭔가, 아버지는 황당해하고 그랬지요. 내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바치고 충성 다해서 귀국했는데 이런 대접 받으니까 서럽고 화가 나죠...(C)

고향에서야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일본 아들끼리 모여서 조선 아이를 보면 “조센징고지끼(ちょうせんじんこじき)” 라고 놀리고 그래.⁴⁷⁾ 그러면 우리는 있자나 “쭉바리”라고 같이 놀려주고 그러지. 아들끼리 무리지어서 놀때나 그러지 골목길에서 만나면 찌소리도 못해... 나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일본 애들도 나에게서는 함부로 못해....

북한에서야 “재포” 아들이라고 많이 놀려대지. 일본에서는 일본말 하는 아들하고 같이 일본말로 싸우고 하는데 조선에서는 못하자나. 조선말이 서투르니까 항상 밀리지. 그리고 애들이 또 선생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 “자들끼리 뭐 했다고”...일본에서는 노력하고도 안되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북조선은 못하자나... 늘 항상 쭉그리고 있어야지...(A).

누구 인터뷰인지 표기?저는 일본에서 차별 그런거 모르고 살았어요. 일본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일본인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조센징 그런거 없었어요. 주변에 귀국자 친들이 있으니까 모여서 이야기 하면 저는 없으니까 마르 못하죠...

차별이 심해도 엄청나요. 직장이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다가도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당원들만 남으시오”하면 아버지는 엄청나게 속상하지요. 말도 못해요. 아버지는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게 차별이죠. 북한에서 제도라고 보는 것도 있고 하죠... 아버지가 1989년 1월 7일 간첩이라는 이유로 붙잡혀 갔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도르와서 무려보니까 친척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가족 중에) 귀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간첩 화르동비를 받는가”하면서...⁴⁸⁾ (B)

47) A의 경우 2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일본 아이들과 싸움도 많이 했다고 한다. 일본 아이들이 “조센징고지끼(ちょうせんじんこじき)” 라고 놀리면 일본말로 “쭉바리 세끼”라고 같이 놀려주었고, 그러다가 친해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48) 김재원, 위의 책(논문). p.101.

반면에 일본에서 어린 시절 차별을 모르고 자랐다는 진술도 있었다. B의 경우 일본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차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론 E의 경우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었고, 학교 친구들이 E가 ‘재일동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단, 연구에 참여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일본에 거주 당시 10대였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받은 차별은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 수준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향⁴⁹⁾에 따른 돌발행동에 가까웠다면, 북한에서 받은 차별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인 감시와 사회적인 통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말과 문화에 익숙하고, 사회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기에 “통제”나 “감시”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정치·사회적으로 “혁명화 교육”⁵⁰⁾ 대상이었기에 감시받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에게 “교육”이라는 단어는 “북송”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이 북송을 선동할 때 가장 중요시한 문구가 바로 “무상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사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적도 없는 재일동포의 신분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랬기에 북송 재일동포들은 북한의 “무상교육”과 “무상치료”에 현혹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송 재일동포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C는 조총련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무상교육”에 속아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북송을 선택한 경우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대학을 나왔어도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9) 물론, 청소년 시기라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이라는 변수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0) 북한 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혁명가”로 거듭나기 위해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조총련에서 이거도 준다, 저거도 준다, 이거도 좋다, 저거도 좋다 해도 안 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미계한 나라에서 뭐 하고 살 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교육, 무상치료” 이런 이야기 하니까, 공산국가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국가가 다르니까...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야들을 공부시키자문 조선에서 가야지...

우리는 뭐해도 안되요. 귀국자가 대학나오면 뭐하나, 동생이 원산경제대학 졸업하고 혜산에 갔는데, 상업관리소 소장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3대혁명소조⁵¹⁾ 하고 왔는데도 못했어요...(C)⁵²⁾

아버지가 조국이 어려운데 우리가 가서 조국 발전에 기여를 해야한다. 하고 갔죠. 아버지는 의학박사니까....

조국에 오면 연구소도 차려주고, 의학 연구를 마음껏 하게 해주겠다고, 대학에서 교수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북한에 정착 가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연구소도 없었고, 그냥 병원에서 평생을 수술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B)

반면에 조국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북송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B의 아버지 경우 일본에서 의학 박사로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행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은 B의 아버지에게 “조국에 오면 연구소도 차려주고”,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부추겼다고 한다. 오히려 교육 연구의 기회를 바라고 북송을 선택했지만, 역으로 자신의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기능적인 역할만을 하게 된 것이다.

51) 북한에서 ‘3대혁명소조’는 대학원 석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52) 김재원, 위의 책(논문), p.119.

IV.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문화정체성

정체성은 사람을 중심으로 종족, 민족, 국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론이다. 따라서 정체성 이론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혹자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사회로써 본질을 탐구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역으로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뱅크스(Banks, 2006)의 주장처럼 인간이 자신이 속한 문화적 집단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아개념을 설명할 때 문화정체성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문화정체성이란 특정 민족·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일체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삶의 가치와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정체성은 역사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인종과 같은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의 자기 개념과 권위를 인정받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천수연(2018)은 문화를 개인의식이 아닌 집합적 생활의 영역 속에서 파악하며 한 사회의 예술 및 지적 작업의 총체로 간주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문화는 특정 종족의 전체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이상의 개념들이 공통으로 간주하고 있는 개념들을 보면 공동체, 역사성, 다른 공동체와의 차별성, 생활양식, 가치관 또는 관념으로 넓게는 법률, 제도, 문물 등의 의미를 아우르고 있다.⁵³⁾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속성과 일체감이 분명한 집단은 보기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인으로, 부모의 선택에 의해 북송된 후 수십 년을 살다가, 자녀들과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극소수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만의 특이한 문화정체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재원(2021)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문화정체성을 분리형으로

53) 천수연, “다국가 이주 경험 한국 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10.

규정하였다. 문화정체성의 분리형은 외부 세계와 정착 사회 문화 간의 연결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자기 고유 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 생활풍습이 전혀 달랐던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북한에 도착한 이후 북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어려웠다.⁵⁴⁾

북한에 왔을 때 우리(북송 재일동포)들은 북한 주민들보고 겐짱이라고 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 하다가 북한 사람이 오면은 “겐짱온다, 겐짱온다” 이러면서 속닥거리죠. 그리고 우리는 “아파차”라고도 해요. 일본에서 원주민을 아파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원주민, 아파치라고 했어요. 아파치다. 이러면 말 안하죠. 우리 모두가 말 안하기 운동하죠. 정부가 어떻게 하는거 말안해요. 김일성 혁명혁사다 하는거 학습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네, 네 하고 말죠.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너무 뻥이라는거 알죠. 근데 그게 알아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자나요. 우리 부모들은 다 알았어요. 일본에서 신문기사 다 보고 왔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끼리도 말 안해요. 그냥 눈빛으로 확인하죠. 아~, 이거는 그냥 모르는척해야 하구나 하고...(A)

북한에서의 삶이 연극살이죠. 배우살이라고 할까. 지옥살이라고 할까... 진실성이 없으니까.. 국가라는 것이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것만 배워주고... 그게 국가인가. 참~, 그러니까 우리는 말 안하죠. 북한 주민들과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말 한번만 잘 못하면 고발하는데... 나는 군대에 가서도,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말 안했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겉으로 보면 충성심이 있게 보이죠.. 그래서 입당했지만... 내가 발전하려면 충성해야 하니까... 그런데 국가가 거짓말만 하니까, 충성심도 진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충성심 있어 보이면 되니까... 거짓말 하는 사회, 국가이지...(D)

북한에서 주민들을 우리는 “아파차”라고 해요. 하도 우리를 감시하고 그러니까 그런거지... 사시르요 아파치라는 말이 일보느 마린데 그렇게 나쁜

54) 김재원, 위의 책(논문), pp.129-130.

마리 아니에요. 원주민이라는 으미인데, 북한에서는 감시꾼, 뭐 간첩 뭐 이런 의미로 통했지요... 우리는 아파치다 그러죠...(B)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과 사회적으로 분리되기를 원했고, 의도적으로 분리되고자 했다. A의 경우 “우리끼리 이야기 하다가 북한 사람이 오면은 “겐짱온다, 겐짱온다” 이러면서 속딱”거렸다고 회고했다. A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북한 주민들로부터 분리되고자 노력했다. 그 이유로 북한 사회의 감시와 통제를 이야기 했다. D는 군대에서도 대학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숙내를 드리내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내용의 진술은 B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B는 북송 재일동포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감시꾼, 뭐 간첩”의 의미로 통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이회영(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탈북민의 “인정투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에서 소수집단은 다수집단에 소속되고자 노력하지만,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소수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집단으로부터 분리되고자 노력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일본과 북한, 한국 사회에서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화된 타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일반화된 타자로써 상호작용의 길을 택하는 대신, ‘거리 두기’와 ‘우월 의식’, ‘비판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정투쟁”의 특징을 나타냈다.

앞에서 본 A의 진술처럼 북송 재일동포들은 북한 주민과의 관계를 “말 안하죠, 우리 모두가 말 안하기 운동하죠.”라고 정리했다. 이들이 북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피하려고 한 이유는 북한 정권의 존재적 특성이 지니고 있는 “감시”와 “처벌”이 가장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송 재일동포들은 D와 같이 북한 사회에서 소수로써 살아 남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화”⁵⁵⁾라는 선택을 했을 것

5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도적인 동화”이다. A는 북한 주민들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이다. “감시”와 “처벌”은 북송 재일동포들에게 가장 큰 공포였으며, 이러한 공포로부터 북한 주민들과의 분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C와 E는 북한 주민들의 “고자질”이 무서워 마음 놓고 이야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E의 경우처럼 북송 재일동포들은 북한 사회에서 일본어 사용마저 주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우리보고 “썰포”라고 하잖소.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고 “젠짱, 아파치”라고 하죠. 그런데 앞에서 대놓고는 못하지. 우리끼리 그러는거지... (웃음)... 북한 주민들 보면 불쌍하죠. 그냥 네네 하고... 우리는 무스워서 말은 못하지만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다 아니까 안속죠...(C)

우리는 아파지라고 하지. 왜냐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고자질하고 감시하는 그런거를 아파지라고 해요. 북조선에서는 다 우리를 감시하고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조선마를 못하니까. 그리고 귀국자들끼리 뭘 마를하는거 같으면야 요렇게 지켜보다가 고자질을 해. 자들끼리 뭐라고 했다고 일본마를로 했다고. 북조선 사람들이야 무섭고, 그래서 아무말도 못하고...(E)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정체성은 북한이라는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문화정체성은 문화 적응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 적응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이다.⁵⁶⁾ 큰

자 침묵하면서도, D와 같이 정치·사회적으로는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북한 사회에 동화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이다.

- 56) Berry, J. W.,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1980, pp.9-25.; Berry, J. W.,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1990, pp.232-253.;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1997, 46, pp.5-34.

틀에서 탈북자들의 적응 문제는 단순히 탈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로써, 통일을 위한 연습과제와도 같은 것이기에 중요하다.⁵⁷⁾ Berry(1980, 1990, 1997)는 문화 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다양한 측정기법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정진경 외(2004)는 특히 문화적응을 이주자가 수용국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가는 일방향적인 과정으로 보거나 또는 두 문화 사이의 어느 적절한 지점을 선택하는 일차원적인 과정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본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차원의 관점을 제시한 것은 큰 공헌으로 평가했다.⁵⁸⁾

구체적으로 개인의 문화 적응 과정을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으로 분류하였다. 동화는 자신의 고유 전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고, 통합은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가질 뿐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정착 사회와도 충분히 접촉을 한다. 분리는 외부 세계와 정착 사회 문화 간의 연결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자기 고유 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는 것이다.⁵⁹⁾ 주변화는 자신의 고유 집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착 세계 양쪽과의 관계를 모두 끊은 상태를 말한다.⁶⁰⁾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에게서는 동화와 통합, 주변화 현상 보다는 분리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57) 정진경·양계민,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 제23집 제1호, 2004, pp.102-103.

58) 정진경·양계민, 위의 책(논문) pp.122-123.

59) 김현경,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4집 5호, 2009, p.232.

60) 김재원, 위의 책(논문), pp.129-130.

V. 맺음말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유리되어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 속에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가 있다. 북송 1.5세 재일동포는 유소년기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북송되었던 사람들이다. 2.0자녀 세대와 3.0세대를 더하면 현재 1,000여명의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는 일본에서 태어나 유소년기를 보내고, 북송되어 청소년기와 중장년기를 보내고, 탈북하여 한국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다. 북송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를 두고 있는 자이니치(Zainichi)이다. 또한 탈북자(North Korean refugees)이기도 하다. 이들은 일본과 북한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였고, 지금은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연구는 디아스포라(diaspora) 정체성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5명을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구술 텍스트를 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송된 재일동포들에게 일본에 있는 고향은 누구에게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고, 애착이나 고향 방문 의사조차 말하기 어려웠다. 이들에게 고향은 꿈에라도 가고 싶은, 그러나 갈 수 없는 토포필리아(topophilia)적 장소인 동시에 치유 받아야 하는 노스텔지어(nostalgia)이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유창하게 일본말을 했고, 일본의 노래와 책을 즐겨 읽고 있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기억과 의식에서는 디스토피아(dystopia)로 남아 있었다.

결론적으로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정체성은 북송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과 북한에서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결론적으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문화정체성은 첫째로, 디아스포라 이산가족으로 평생을 온전하게 정주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에

따라 파생되고 “분리”된 특성을 보였다. 둘째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특정 사회에 적응 혹은 동화되기 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가족을 중심으로 “주변화”된 특성을 보였다. 셋째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시·공간적 차원에서 경험한 문화정체성은 동화와 통합을 거부함으로써 적응에 역행하는 능동적인 “인정투쟁”의 결과로 표출되었다.

(논문투고: 2024.10.30. 심사완료: 2024.12.16. 게재확장: 2024.12.19.)

참고문헌

- 강가영·장유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를여는청소년학』 제10집 1호, 2013.
- 김재원, 「북송 제일동포 탈북자 복합 정체성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현경,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4집 5호, 2009.
- 김희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유라시아연구』 제15집 3호, 2018.
- 남기호,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 『사회와 철학』 제18집, 2009.
- 박주원, 「자아와 문화의 정체성, 불안과 불만의 문화정치학 - 프로이트(S. Freud) 정신분석학의 정치사상적 접근」, 『21세기정치학회보』 제29집, 1호, 2019.
- 박운신, 「다문화시대의 문화정체성 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서성민·강희양·김태호,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정체감 태도 발달과 정서적 안정감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집 1호, 2013, p.71.
- 악셀 호네프 저,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경기: 사월의책), 2011.
-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23집 1호, 2011.
- 오인혜, 「탈북자의 토포필리아와 고향의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 이명진·최유정·최선희,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집 1호, 2010.
-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집 1호, 2013.
- 이현주·강현아,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32집 4호, 2011.
-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

- 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제1호, 2010.
- 정정현·김선미,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학생의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정체성과 자아정체성 비교 분석」, 『사회과학교육연구』 제20집 4호, 2013.
- 정진경·양계민,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 제23집 제1호, 2004.
- 조학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복음과 실천』 제53집 1호, 2014.
- 천수연, “다국가 이주 경험 한국 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최영호,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 변화의 역사」, 『한국사연구』 제140집, 2008.
- 프랑수아 줄리앙 저, 이근세 역,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교유당, 2020.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홍서연·손병덕·손주희,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거주 국민을 중심으로」, 『다문화연구』 제12집 3호, 2018.
-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Berry, J. W.,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lder, CO: West view. 1980.
- Berry, J. W.,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1990.
-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1997.
-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8.
- E. S. Bogardus. Measuring social distance,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Vol. 9, No. 2 1925.
- H. C. Triandis, and L. M. Triandis. Race, social class, religion, and nationality as determinants of social distanc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1 1960.
- Hegel, G. W. Friedrich., *Jenaer Systementwürfe III*.
- Honneth, Axel., *Kampf um Anerkenn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 H. Tajfel.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H. Tajfel, and J. C.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J. T. Jost & J. Sidanius (eds.). *Key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Political psychology: Key readings. New

- York, NY. US: Psychology Press, 2004.
- J. A. Banks,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2006.
- J. S. Phinney, & V. Chavira,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n Exploratory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Vol. 15, 1992.
- Kadushin, Alfred. A Study of Adoptive Parents of Hard-to-Place Children, *School of Work*, University of Wisconsin, 1962.
- Phinney, J. S.(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Rogers.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s: Harvard University Pres. 1992.
- R.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s: Harvard University Pres. 1992.
- S. M. J. Miller, Castles, and G. Ammendola.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3.
- V. N. Parrillo, and C. Donoghue. Updating the Bogardus social distance studies: a new nation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42, 2005.

•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의 정체성을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유리되어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 속에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가 있다.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 정권과 조총련, 일본 정부에 의해 북송되었다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1959년 12월 첫 북송이 시작된 이래 1984년까지 9만 3,342명이 북송되었다. 이 가운데 500여 명의 북송 1.5세 재일동포들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돌아왔다.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는 일본에서 태어나 유소년기를 보내고, 북송되어 청소년기와 중장년기를 보내고, 탈북하여 한국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다. 북송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를 두고 있는 자이니치(Zainichi)이다. 또한 탈북자(North Korean refugees)이기도 하다. 이들은 일본과 북한의 문화를 모두 경험 하였고, 지금은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연구는 디아스포라(diaspora) 정체성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1.5세대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정체성은 북송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과 북한에서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결론적으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의 문화정체성은 첫째로, 디아스포라 이산 가족으로 평생을 온전하게 정주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에 따라 파생되고 “분리”된 특성을 보였다. 둘째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은 특정 사회에 적응 혹은 동화되기 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가족을 중심으로 “주변화”된 특성을 보였다. 셋째로,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들이 시·공간적 차원에서 경험한 문화정체성은 동화와 통합을 거부함으로써 적응에 역행하는 능동적인 “인정투쟁”의 결과로 표출되었다.

주제어 : 북송 재일동포 탈북자, 탈북자, 정체성, 문화정체성, 동화, 디아스포라, 인정투쟁

• Abstract •

A Study on Identities of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Focused on Cultural Identity

Kim, Ja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dentity of 1,5 generations of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from a cultural perspective. In our modern history, there are people who have lived without the identity of 'I' separated from the nation and its people. Among them are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are those who escaped North Korea after being repatria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the Chochongry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1959 to 1984. Since the first North Korean repatriation began in December 1959, 93,342 people we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until 1984. Among them, about 500 1,5 generation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returned to South Korea or to Japan.

1,5th Generation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in Japan are those born and lived in Japan until their adolescent years, spent their youth in North Korea, and defected to South Korea and reached senior age.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are Zainichi born in Japan with Korean parents. They are also North Korean refugees. They have experienced both Japanese and North Korean culture and are now adapting to South Korean culture. Therefore, the study of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is in line with the study of the diasporic identities. The identity of the 1,5 generation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was a continuation of enduring the pain of separation and the pain of living in North Korea.

In conclusion, the cultural identity of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was first derived due to time and space, and “separated” in the process of constantly moving without fully settling down as diasporic families. Second, rather than adapting or assimilating to a specific society,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showed “marginalized” characteristics centering on their own group or family. Third, the cultural identity experienced by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at the temporal and spatial level was expressed as a result of an active “recognition struggle” against adaptation by refusing to assimilate and to integrate.

Key word : Zainichi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n Refugees, Identity, Cultural Identity, Assimilation, Diaspora, Recognition struggle